

카드 홍수 속에 떠 밀려 산다



금융결제원/전무이사 조이남

우 리들은 지금 카드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만 세어보아도 주민등록카드, 운전면허증카드, 한빛은행카드, 국민기업카드, 외환은행카드, 신한은행 KiXXcash카드, 현금서비스카드, 농협 하나로클럽카드, LG정유카드, BANKERS CLUB카드, 영풍서적카드, 강남컴퓨터서적카드, Kim's CLUB카드, Korean AIR Skypass카드, 전화카드, 각종 백화점카드(3) 등 무려 18종이나 된다.

이 모두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다. 그래서 외출할 때 마다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지 고민할 때가 종종 있게 된다.

우리 집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합하면 30여 종은 넘을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오늘은 카드가 어떤 종류의 것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카드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고객이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시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는 은행계 카드와 전문업체 카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문업체가 매우 다양하게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쇼핑센터는 모두가 자기회사 개별 카드를 발행하고 있어 한 사람당 소지하는 카드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또한 카드에 가치를 충전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기띠형 카드와 IC카드로 구분하는데 최근 IC카드에 대하여는 전자현금, 사이버화폐, 디지털현금, 스마트화폐, 가상현실화폐 등 여러 가지 별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지하철카드, 전화카드, 버스카드, K-cash(은행공동발행), 몬텍스카드, Ajixcash(LG, 삼성, 국민카드 제휴) 등이 있으며 또 전자카드는 사용하는 기계방식에 따라 접촉식, 비접촉식으로 구분하며 접촉, 비접촉 모두가 가능한 컴비카드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K-cash가 여기에 속한다.

우선 전자카드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그 구조가 통일되고 정보를 기록하는 위치도 통일하여 버스, 지하철, 전화 및 각종 자동판매기를 카드 한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500만명 정도가 용도별로 1인 4매씩 카드를 소지한

다면 2,000만매의 카드가 필요하고 카드 한 장당 8,000원 정도의 카드제작비가 소요된다면 1,200억원(1,500만×8,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여기에 카드를 사용하는 단말기의 설치단가를 15만원으로 계산하고 50만곳에 중복하여 기계를 설치했다면 750억원(50만대×3대×15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표준화를 하지 못하며 발생하는 사회적 지출비용이 1,950억원이나 된다.

아직까지는 전자카드의 보급률이 높지 않고 초기단계에서 시범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 표준화된 전자카드를 서둘러 제작하고 관련업체와 조율한다면 필요 없는 사회적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일부 기기나 카드를 보급하는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축소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국산화를 하지 못하여 외국에 주는 로열티를 생각한다면 시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15년 전 현금자동인출기를 공동개발 할 때의 예를 들어 표준화에 관련된 문제를 설명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기술해 보고자 한다.

1986년도 우리나라의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는 모두가 일본에서 제작한 JIS규격에 맞는 카드만을 사용하는 기계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카드 보급률이 높지 않았고 문제될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 않았으

나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모든 은행이 사용하려다 보니 카드의 규격이 다양해서 자기 띠의 내용을 통일하지 않으면 공동이용이 어렵게 되어 표준규격으로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현금인출기 기기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한 것도 사용할 수 있어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때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표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현금자동인출기의 보급대수가 적을 때 빨리 서둘러 표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표준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아냈고 일부 먼저 설치한 기기도 개조 없이 사용하다가 내용연수가 끝나면 표준규격에 맞는 기기로 바꾸도록 경과조치규정도 만들었다.

공동이용 초기에는 JIS규격과 IOS규격이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현금자동인출기의 자기띠 읽는 장치만을 교체하여 사용케 하고, 고객카드의 앞면에는 JIS규격 자기띠가 부착되고 뒷면에는 ISO규격에 맞는 자기띠를 부착하도록 하여 JIS규격과 ISO규격 모두를 사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ISO규격으로 통일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 제품의 현금자동인출기가 대당 23,000\$로 도입되었던 것이 표준화가 끝난 다음에는 대당 7,000\$로 떨어져 국내 은행들은 상당한 기기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화는 정보기기 뿐만 아니라 장치산업에서도 선결해야 할 과제이며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ISO규격을 심의하는 국제회의에서는 자기나라에서 이미 생산된 기기의 규격에 맞도록 국제표준 규격을 제정하려는 경향이 많으며 ISO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전자화폐 분야만을 예를 들어 표준화 문제를 거론했지만 표준화는 우리나라 장치산업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간인 기구에서도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공업진흥청의 표준화 사업을 도와서 세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